

# “불자들 ‘자정·혁신·단합’의 자리로”

##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10월 19일 봉행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47년, 구산선문의 하나인 문경 봉암사에서 수행결사가 조직됐다. 창당,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스님 등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며 해방직후 일제식민지 불교 폐쇄 혁신을 결의한다. 이 정신은 이후 승단 정화운동과 조계종단 재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 화두잡선과 포살법회 정례화, 대중 원용살림 등의 수행종풍을 복원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

조계종이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10월 19일 오전 11시 봉암사에서 봉행한다.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로 명명된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대중은 기념법회를 통해 결사의 의미를 계승해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신행혁신을 다짐한다. 특히 최근 종단 내외의 상황을 반영해 ‘자정(自正)과 혁신, 불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

법회는 봉암사 결사 경과보고, 공주규약 낭독, 기념사, 종정 법어, 각계 메시지, 결사 60주년 기념선언문, 잠정정진, 좌선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도 개최된다.

1부에서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봉암사 결사의 조명’을,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봉암사 결사의 개념’을, 송현주 교수(순천향대)가 ‘봉암사 결사와 의례’를, 서재영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봉암사 결사와 성철’을, 혜정 스님(서울 문수사 주지)이 ‘봉암사 결사와 청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부 ‘내가 본, 내가 들은 봉암사 결사’에서 혜명 스님(청담기념관 관장)이 청담 스님, 천제 스님(법규위원장)이 성철 스님, 혜종 스님(또교위원장)이 자운 스님에 대해 회고와 증언을 한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의 사회로 목장배 전 교수(동국대), 김선근 교수(동국대), 신구락 교수(연세대),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 Tip 공주(共住)규약이란

스님들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행동지침이다.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이 친필로 썼다. 엄중한 부처님 계율과 송고한 조사의 유훈을 부지런히 닦고 힘써 실행해 깨달음의 경지에 원만하고 빠르게 이를 것을 기약한다. 어떠한 사상과 제도도 막론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사견은 절대 배제한다. 등 모두 18개 항에 이른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조선일보 구독 거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 본격화

### 조계종, 본말사에 지침 하달

조계종 총무원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 지침을 10월 8일 본말사에 시달했다.

총무원은 지침에서 “‘조선일보’는 신정야 권을 보도함에 있어 관련성 유무나 사실 여부 대한 확인없이 불교계 관련 기사를 추측·예측 보도함으로써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언론”이라며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법회와 사찰 행사 등을 통해 종단 차원의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찰 입구에 별첨의 현수막을 부착한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에게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사찰 차원의 구독 거부는 물론, 사찰 소속 또는 유관 기관 단체(복지관, 어린이집 등)와 신도 개개인 단위의 구독 거부 실천을 독려한다 등을 각 사찰에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 총지종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총지종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국제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국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 출가승 위주의 불교지도자 대회와는 달리 미국, 유럽, 호주 및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에서 15명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진행한다.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회관에서 재가불자들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회가 개최된다. 이어 다음날인 21일에는 설악산 만해마을로 자리를 옮겨 세미나와 토론이 열리며, 22·23일 양일간은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설악산과 신홍사 일대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총지종 부산 장각사에서 종단 공식불교법회와 한국전통불교문화회를 소개하는 공연도 연다.

김주일 기자

## 미안마 민주화지원 대책위 발족

스님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미안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불교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권수, 이하 비상대책위)는 10월 10일 서울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2층 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비상대책위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9개 단체가 참여했다.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국제적인 불교단체의 성명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미안마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급속적 빠른 시일 내에 미안마를 방문하고 현지 상황과 불교삼보의 훼손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여수형 기자

## 태허스님 탄신 103주년 수계식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10월 5일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 탄신 103주년’을 맞아 총본산인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예하인 죽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갈마아사리에 원로원장 인봉 스님, 교수아사리에 총무원장 흥파 스님을 3사로 모셨다. 또한 7증사는 호법원장, 부원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등 종단 중진스님이 참석해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자는 구족제 15명, 사미(尼)제 11명, 법사 22명 등 총 48명이다. 김주일 기자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연기

### 불교계 “지속적 대응할 것”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했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법안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가 됐던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구역 기준 500m에서 200m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입안 추진되자, 용주사와 봉선사 등 지역 불교계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호·인목, 이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10월 8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일에는 140여개 사찰 신도 및 시민단체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연 비대위. (사진=박재환 기자)

대 반대 집회로 개악 저지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측이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의한 상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연대해 비상

대책위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대한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상대책위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은 “입안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일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비상대책위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 “발로 뛰는 총무행정 펼 것”

###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총무원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총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분담금도 확실적이 아니라

각 교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서울 상계동 도선사 주지·사진은 요즘 전국 각 교구를 돌아보느라 총무원 청사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단지 교구 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지역 포교 현실을 체험하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포교 방안도 연구중이다.

앞으로 덕우 스님은 종도 교육도 강화할 생각이다. 이번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종도연수교육을 통해 이를 종도들에게 알리고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덕우 스님은 “내년에는 경기도 남양주나 강원도 강릉에 총무원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중앙 총무행정 기관이 현실해야 지역 교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요.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 보색 입힌 자연경관 화폭에

### 법관 스님, 인사아트센터서 ‘비산비수’ 개최

선화가 법관 스님이 ‘비산비수(非山非水)’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10월17일-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선 자연경관을 스님 나름대로 독특한 화풍으로 해석한 작품 50여점이 벽에 걸린다. 얼핏 보면 비구상화라는 느낌이 들지만 스님은 명백히 화단에 자연경관을 담았다.

빠죽빠죽 솟은 것은 숲이거나 산봉우리일 것 같다. 또 옆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는 계곡이거나 눈발, 강, 호수 또는 구름으로 이해된다.

스님은 화려한 보색대비 채색 기법을 이용해 산수화의 새로운 장르를 보여준다. 하지만 결코 억지스럽지 않다. 작품을 꼼꼼



법관 스님의 ‘비산비수’

히 뜯어보다보면 색다른 시도에 ‘저런 식의 산수화도 가능하구나’ 하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3)643-4537

김주일 기자

## 현대불교신문

###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문의: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 (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 제8대 총무원장 율호당 회암 종사 취임



재단 이사장 권성우

중앙총회회장 서법진

감찰원장 임은주

교육원장 남석진

중앙포교원장 김진표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음, 9월 7일)

◆장소 : 미타종 총본산 봉암사 불교회관

### 미타종 종도 일동

총무원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관 전화 02)2242-1049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